



육군17보병사단 군사경찰특임대 장병들이 12일 인천시 도시지역전투훈련장에서 실시한 민·관·군·경·소방 도시지역작전 훈련 중 경찰특공대와 함께 지하철역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원팀’ 민·관·군·경·소방 “도심 완벽 사수”

‘2026 자유의 방패’ 연습 실전적 전개
육군17사단, 도시지역작전 훈련 구슬땀
화재 진압·시민 대피·폭발물 처리 척척
육참총장 “다양한 위협 대비태세 갖춰야”

‘2026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나흘 차인 12일 우리 군은 전국 각지에서
실전적인 훈련을 전개하며 연합방위태
세를 굳건히 했다. 각급 부대 장병들은 다
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며 국
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능력을 배양
했다. ▶관련 기사 3-7면

육군17보병사단은 이날 인천시 도시지
역전투훈련장에서 민·관·군·경·소방 등 국

가방위요소가 함께하는 도시지역작전 훈
련을 하며 통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했다. 도
시지역 내 복합 위협상황을 가정한 훈련은
국가방위요소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국
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대응 능력
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는 사단 승리여단·군사경찰대·
공병대대·화생방대대, 특수전사령부 귀성
부대, 수도군수지원단 폭발물처리반 등
에서 장병 460여 명이 참가했다. 경기남부경
찰청 경찰특공대, 김포시청, 김포경찰서,
김포소방서, 김포골드라인도 함께해 관계
기관 간 통합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은 병원 건물에서 폭발물 의심물체
가 발견됐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즉각 현장
에 출동한 군·경·소방은 화재를 진압하고

환자·시민을 대피시켰다.

이어 폭발물 처리와 화생방 오염 여부를
확인한 뒤 지하철 역사로 도주한 테러 용의
자를 추적하는 작전을 펼쳤다. 군사경찰특
임대와 경찰특공대는 역사 외곽을 통제하
는 가운데 드론 등 감시자산을 투입해 도주
를 차단했다. 이후 특전사 귀성부대가 역사
내부로 진입, 물샴틈없는 탐색·격멸작전
끝에 용의자를 제압했다.

특히 신형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
(MILES·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교전상황을
실시간으로 판정하고 전투 결과를 과학적
으로 분석했다. 장병들은 실제 도시지역과
유사한 환경에서 엄폐·기동·교전 절차를 숙달
하며 도시지역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현장을 찾

아 훈련장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훈련장 발
전방안과 육군 차원의 지원요소를 논의했
다. 이어 훈련 모습을 직접 확인하며 장병
들을 격려했다.

김 총장은 “현대전에서 도시지역작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도시지역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소방이 긴밀히 협력하는 통합
훈련을 지속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지킬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육군은 앞으로도 실전적인 통합방위훈
련으로 도시지역 복합 위협의 대응력을 강
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준 기자

국내 첫 개발 공대지유도탄 ‘천검’ 품질인증사격시험 성공

소형무장헬기 정밀타격 능력 확보
4년 만에 본격적인 양산 단계 돌입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공대지유도탄 ‘천검(天劍)’
을 소형무장헬기(LAH)에 장착하기 위한
사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2일 기품원은 “지난 10일 충남 태안군
안흥시험센터에서 소형무장헬기용 공대지
유도탄 ‘천검’의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완료
했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사격시험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확보된 유도무기체계의 성능이 실제 양산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10일 소형무장헬기용 공대지유도탄 ‘천검’의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소형무장헬기가 천검을 발사하는 모습. 기품원 제공

품에서도 같게 구현되는지를 검증하는 절
차다. 전력화에 앞서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
하는 핵심 단계다.

시험은 방위사업청, 기품원, 국방과학연구
소, 육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인증사격시험 협의

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 운용환경
을 모사한 상황에서 시험한 결과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기품원은 설명했다.

천검은 소형무장헬기에 탑재돼 지상표
적을 정밀 타격하는 대전차 유도무기다.
2022년 국내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번 시
험을 차질 없이 수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양
산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신상범 기품원장은 “천검이 양산 단계에
서도 요구 성능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
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산 무기
체계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검증·관리해 신
뢰성을 높이고, 향후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